

2022학년도

A+학생들의 A+공부비법



■ A+학생들의 A+공부비법

Contents

저녁형 인간의 대학 생존기

김정환_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전공 15학번

후회없는 대학 생활을 위해

나은희_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17학번

やればできる(하면 된다)

박영근_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전공 16학번

오늘의 고달픔은 내일의 여유

백숙현_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19학번

대학 생활, 나만의 길을 찾는 여정

선혜연_서양어대학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18학번

다시, 그리고 또다시

안현진_일본학대학 융합일본지역전공 18학번

투머치토키 18학번의 잔소리 모음집

이에나_서양어대학 노어과 18학번

나만의 환경을 설정하는 공부 방법

전희주_아시아언어문화대학 몽골어과 18학번

매일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완성해가는 남다른 대학 생활

조수아_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전공 19학번

후회 없는 4년을 보내기 위해

진혜윤_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18학번

슬기로운 대학 생활

최소현_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18학번



저녁형 인간의 대학 생존기

김정환_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전공 15학번

저녁형 인간의 속명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낮에는 나른해서 손에 펜이 안 잡히다가도, 밤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보통 낮에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핸디캡을 안고 대학에 왔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 책의 지면을 나눠 받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후배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일념으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 합니다. 다만 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대부분의 대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후배 여러분께서 생활하실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어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형 인간의 수업 참여

저녁에 뇌가 활성화되는 저는 낮 수업을 견디는 것이 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른해지는 몸을 다잡고, 노트 필기를 철저히 하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남겨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녹음을 믿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흐트러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수업에서 언급되는 모든 것을 받아 적기 위해 팔이 아플 정도로 필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트 필기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교수님께서 강조하시거나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핵심 내용은 자세하게, 참고사항은 간단히 줄여서 적는 등의 완급조절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필기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술이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좋은 수업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긴장감은 오히려 집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 아는 한 대답을 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우들끼리 회화 연습을 자주 하게 되는 언어 전공 특성상, 수업 중에 그러한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그때에도 최대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재와 참고자료, 필기구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책은 최대한 직접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온전히 저의 것이었기에 마음껏 볼 수 있었고, 깨끗한 지면에 저만의 필기와 요약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형 인간의 전공 공부

일본어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흥미를 발전시켜서, 대학에서는 전공으로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부전공은 독일어를 선택했습니다. 2언어 전공은 약간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외대에 입학할 때부터 정해 둔 사항이었고,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어는 일상에서 공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언어를 일본어로 설정하고, 일본 노래와 소설 원서를 즐기며 일본어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뉴스를 틀어 놓고 들리는 대로 따라 하는 '새도잉'을 통해 일본어에서 중요한 억양과 장단을 연습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 수업 시간에 배울 부분을 미리 훑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꼼꼼히 뜻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 중에 모르는 단어를 만나 급하게 찾는 수고를 없애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정독하는 것이 아닌,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가볍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전반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방학 때는 일본에 여행을 가서 살아 있는 일본을 접하고, 일본의 일상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의사소통 연습과 문화 공부를 일거에 해결했습니다. 언어를 문화 요소와 함께 익히니 암기도 쉽게 되고 말이 가진 속뜻을 파악하기도 수월해져,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생소한 일본어 단어나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온라인 사전 대신 전자사전과 유료 앱 사전,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국어사전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사전 등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교수님들께서도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남자 대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에서도 계속되어, 복학 후에도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소설 원서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읽고, JLPT 시험에 응시해서 일본어 능력을 체크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어를 공부하는 친한 후임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독일어

부전공으로 배우게 된 독일어는 일본어와 달리 제가 대학에서 처음 접한 언어였습니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방법은 일본어와 대동소이했습니다. 독일 노래를 찾아 듣고, 독일 공영방송사인 Deutsche Welle의 유튜브 뉴스 채널을 틀어 놓고 생활하며 귀를 독일어에 적응시켰습니다. 도중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자사전에 내장된 독한사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뜻풀이가 정밀하지 못한 것에 한계를 느꼈고, 학습 능률도 고려하여 나중에는 책으로 된 독일어-일본어 사전을 구해서 사용했습니다. 독독사전인 Duden도 참고했습니다.

수업 전에 교재를 읽어보며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고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수업 중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더해 시험 기간에는 교재를 노트에 베껴 쓰며 단어와 속어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간과 수고가 매우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난생처음 배우는 독일어와 단기간에 친해지기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글씨로 된 교재가 하나 생기게 되어, 중요한 내용을 저만의 방식으로 강조해 둘 수도 있고, 익숙한 글씨체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소소한 이점도 생겼습니다. 단어장은 처음에는 노트를 사용했지만, 복학 후에는 군에서 다룰 줄 알게 된 엑셀을 활용하여, 독일어 명사의 3가지 성과 동사 변화, 아직 암기하지 못한 단어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자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너무 먼 탓에 여행을 가기는 힘들었지만, 그 대신 저는 독일인 교수님과 자주 대화하며 서툴게나마 독일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문장을 곱씹으며 원어민의 독일어를 접했습니다. 독일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독일어 강좌 채널에서 어려운 발음에 관한 팁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배운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마주한 독일어 말하기 기말고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녁형 인간의 교양 쌓기

하기 싫은 공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실컷 하였고, 대학에서는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교양 과목은, 흔히 말하는 '꿀강'보다는, 정말로 제가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 위주로 수강했습니다. 저는 언어 이외에도 철학과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수업을 들었고,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 관련 교양 수업도 여럿 수강하여, 외대가 아니면 접하기도 힘든 희귀 언어를 배우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권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수업에서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된 지문을 읽게 되어 약간 당황했지만, 의외로 영어와 닮은 점이 많아서 마치 로제타석을 해독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학습한 경험도 있습니다.

필수 교양인 미네르바 교양 수업에서는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충실히 필기하여 복습 때 막히는 부분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시험 준비는 주로 교재를 여러 번 읽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은 함수를 암기하고 예제를 풀어보는 등, 과목 특성에 맞춰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족보'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고, 좋아하는 분야의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며 얻는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저녁형 인간의 워라밸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학내활동입니다. 저는 놀 때와 공부할 때를 잘 구분하여,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본학대학 내의 동아리 중 일본 서브컬처를 다루는 곳에 참가하여 매주 화요일 뜻이 맞는 학우들과 교류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장을 맡게 되어 학업과 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공강을 적절히 배치하고 짬이 나면 자취방에서 쪽잠을 자며 시간 관리와 체력 안배를 하였습니다. 그 덕에 동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는 과방에 자주 들러 함께 고생하는 학우들과 서로 아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서로 격려해주는 속에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생겼고, 아는 것을 설명해주며 오히려 저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제가 즐겨 찾은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풀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일본 노래를 선곡해서 즉석 일본어 연습을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시방에서 학우들과 즐겁게 게임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원서와 번역서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저녁형 인간의 리포트와 발표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최대한 공신력 있는 참고문헌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면 유료 논문에도 접

근할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할 때는 질과 양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문을 많이 접하게 되고, 리포트를 논리적으로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표 때 참고할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청중에게 제시할 자료(파워포인트 등)와 동시에 작성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발표를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발표할 때는 원고 또는 파워포인트만을 보고 읽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생동감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또렷하고 크게 내는 연습도 곁들였습니다. 한편 발표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직접 들고 와서 제시하며 청중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사용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색다른 발표 형식을 시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동영상 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고 목소리를 녹음한 발표 자료보다 훨씬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했고, 자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교수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外」 대에 왔으니 밖으로도 나가 보자

외대의 최대 강점은 글로벌 감각을 상시 익힐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손에 쥘 강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글로벌 교류 기회를 활용하였습니다.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는 매우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일본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으로 떠난 단기 연수가 있습니다. 방학 중 약 3주간의 연수를 통해, 현지 학생들과 팀을 이뤄 과제를 해결하고 일본 여러 지역의 주민분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관광으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통해, 동고동락하며 현재까지도 교류하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를 사귀었고, 전공 언어의 감각을 연마하여 학업에 보탬이었습니다.

둘째로,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学)으로 떠난 교환 유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집하는 교환학생에 지원하여 시험과 면접을 거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2개 학기 동안 현지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속에 자연스럽게 그 어느 때보다 밀도 높은 교류가 가능하였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시험공부를 하고, 함께 현지 맛집에 가서 메뉴를 고민하는 등, 행복한 교환 유학 생활 속에 일본어는 신경 쓰지 않아도 향상되어 갔습니다. 또한 외대와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며 한문학, 고전문법 등을 일본 현지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전문 자료를 참고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일상 그 자체가 되어, 최신 유행어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을 체득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숱을 쳐 달라는 표현, 단단한 두부를 지칭하는 표현은 바로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를 일본어로 대화하며 사귀는 진기한 경험도 이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대만에서 왔는데, 나중에 그 친구 덕분에 중국어를 전혀 못 하지만 대만 여행을 신나게 즐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환 유학은 외대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더욱 빛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뻘뻘해도 괜찮아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철면피 기질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동아리 회장으로서 학우들을 즐겁게 해주고, 발표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부끄러움과 무서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녁형 인간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외대에 입학하였지만, 숨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뻘뻘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노력한 결과가 위에서 이야기해 드린 것들입니다. 후배 여러분께서도 용기를 내시어 말 한마디, 글 한 줄을 더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반드시 최고로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회상하며 사회로 나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후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위해

나은희_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17학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17학번 나은희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얻어 학우분들께 제 공부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많은 말들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돌아보면 그리울 대학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인식하기

많은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입생 때는 공부 외에 신경 쓸 것들이 많아 공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학점은 뒤로 미뤄두고 마음 가는 대로 생활했던 신입생 시절을 대부분 학생은 후회합니다. 공부도 하면서 놀 줄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석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엔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것들을 하지 않아 신입생 때부터 학점 관리에 실패하는 신입생들이 많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습관화한다면 공부 습관이 자리 잡아 점점 공부가 편해질 것이고,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스스로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다음 시험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과 눈을 맞추며 수업에 집중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깨닫는 것, 좋은 성적을 받아 행복하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 등의 과정에서 재미와 행복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공부

처음 입학하여 전공 수업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공은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르고 어렵습니다. 수업에서 기초적인 지식부터 전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환경학과의 필수 과목들(환경학개론, 환경공학개론)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필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모르는 내용은 교수님께 바로바로 여쭙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소한 개념이 많아서 수업 때 한 필기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기억하기 쉽습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진도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수업 후 기억이 휘발될 때쯤 복습하면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누적된 내용을 기억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목들이 이후 배우게 되는 전공과목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용어, 개념 등을 익숙하게 하고 내용 또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선택하여 공부한 것이 전공 공부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는데, 지금껏 화학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일반화학'을 수강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학년 전공필수과목인 '대기오염개론'과 '대기과학'에서 많은 학생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두 과목에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수업마다 배우는 양이 많고 내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이 등장하고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이해하려 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다가, 한 학기를 마쳤을 때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배웠던 거구나. 이런 성취감과 깨달음,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맛있는 과목들이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느꼈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정말 많아서 미리 복습하지 않는다면 시험 기간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외의 전공과목들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 공부하기 조금 더 편한 것을 선택하여 들이고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마다 스타일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쉽지만 양이 많은 과목도 있고, 내용은 어려우나 시험 자체는 간단한 과목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시험 출제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좋은 성적 받는 지름길입니다.

교양 공부

교양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수강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에서 들어야 하는 필수 학점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관심 있는 교양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과목을 듣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당연히 유리합니다. 저는 과학과 역사 분야를 좋아해서 대부분 교양을 관련 내용의 수업으로 채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고 관심이 있다 보니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좋은 성적이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강 신청에 실패하여 억지로 들었던 교양 과목들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교양 수업인 만큼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었던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강 신청 잘하는 법을 연마하세요!

또 교양은 수강 인원이 많아서 성실히 임한다면 평균적인 점수를 받기는 수월하나, A+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암기가 기본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 수업 자료를 바로바로 정리하고 제대로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후 일주일 이내로 해당 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나중에 보았을 때 편리하게 만들어 두면 시험 기간에 편리합니다. 학점도 챙기고 노는 것도 챙기려면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에 집중해서 들으면 그때 배운 내용이 많이 흡수되어 혼자 공부할 때도 생각보다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학점에 관한 생각

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취업에

서 학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지원자들의 학점을 보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이라는 상황과 별개로 본인의 의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 과정에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 생활과 학점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직무의 시험에 합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대학 생활이나 학점에 대해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전화를 받아 행복했던 기억 등으로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성적이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학점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어느 순간에나 유리할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대학 생활에 대해

신입생 때는 학교에 적응하고 사람들에게 치이느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새내기 때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좋은 사람만 곁에 남아 평생 서로를 응원해 줄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중간에 휴학해서 원 없이 여행도 다녔고 동기들과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다니던 학교를 지나가게 될 때면 이제는 몹시 돌아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보냈던 몇 번의 사계절을 생각하면 벌써 그리운 기억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대학 생활이 참 소중한 날들이었음이 더더욱 느껴집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만난 인연들만큼 편하고 만났을 때 신이 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학점 관리와 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공부만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답니다. 여러분도 놀건 놀고 공부할 건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멋진 대학 생활하길 바라요!



‘やればできる(하면 된다)’

박영근_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전공 16학번

적지 않은 학번으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서면으로나마 후배님들을 뵈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의 저는 뚜렷한 목표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성적도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많은 친구들이 이미 현지인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 전공에서 장학금이라는 큰 포부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막연히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욕심에 공부했고 운 좋게 첫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기분 좋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성취감은 대학교 재학 동안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후배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성취감’입니다. 목표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이번 학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기분 좋은 성취감을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목표를 설정해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선순환을 재학 동안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표 안에 좋은 학점, 장학금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학기의 준비

학기를 시작하며 이번 학기 어떤 전공과 교양 과목을 수강할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강의계획서와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술형 수업보다 암기형 수업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맞는 수업을 찾기 위해 시간표가 업로드되는 대로 강의계획서를 꾸준히 정독했습니다. 전공과목의 경우 학과마다 요구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짜여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양 과목은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수업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유형의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수업을 고르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인기 교양은 늘 수강 신청이 치열해 듣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기에 자신 있는 내가 논술형 시험을 요구하는 인기 교양을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읽고 가장 자신 있는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방법

- 반복의 중요성

다른 과도 그러하듯 일본어 전공의 경우 기초를 다지는 1학년, 보다 심화 내용의 산문을 학습하는 2학년, 세분화된 심화 학습을 하는 3학년·4학년의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1학년·2학년 수업을 놓치게 된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복습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날 배운 수업의 내용을 그날 복습하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학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저는 매일은 어렵지만, 최소 시험 한 달 전부터 복습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해왔습니다. 본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해당 과목의 공부를 마치고 다른 과목을 준비하면 자연스레 그전 내용은 잊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응하기 전 적어도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잘 모르는 문제도 갈피를 잡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꾸준한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는 수험 생활을 치러온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나에게 맞는 학습법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노트를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에서 참고 서적을 통해 심화 내용을 학습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학습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통암기'와 '필사'였습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암기를 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기에 교수님께서 주신 강의안을 최대한 토씨까지 외우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조금은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과의 시험은 생각보다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과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전공 시험에서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채 본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장의 맥락상 말이 되지만 본문의 단어가 아닌 단어로 답을 기술한 학생은 모두 오답 처리되었고 오로지 본문의 단어로만 빈칸을 채운 학생만이 답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통암기 하지 않은 이상 오답을 적어낼 수밖에 없던 문제였습니다. 덧붙여, 암기형의 수업도 비단 객관식과 단어 채우기 등의 양식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 큰 배점으로 배운 내용을 아울러 서술하는 문제를 적잖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불완전한 학습을 했더라면 답안을 기술하는 도중 강의에 근거해서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살을 붙여 꾸미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방식이 낯설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안의 핵심 키워드, 이와 관련된 교수님의 설명을 잘 정리해 암기하는 것 또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핵심 단어는 교재에 나온 그대로 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재의 익숙지 않은 미사여구나 토씨 등은 자신에게 익숙한 단어로 가공하여 사용하되 키워드만은 본문에 적힌 그대로 기술하셨으면 합니다.

본래 필사를 통해 무언가를 암기하는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았습지만 한자가 많은 과의 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언어의 재미있는 모미이자 어려운 점은 부수나 획 하나로 그 뜻이 아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응시했을 때 부수를 잘못 적는 실수를 줄이고자 반복하여 필사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도 과거에 본인과 맞지 않는 학습법이라고 생각해, 해오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합니다. 되려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여러 학교와 국제 교류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7+1 파견 학생 제도'를 이용해 현지에서 더욱 생생하게 일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이 선택은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전공 언어를 구사하며 국적이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모습은 저희 모교의 슬로건인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와도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책으로만 보던 일본어를 강의실이 아닌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간 마트에서, 간단한 야식을 위해 들린 편의점 등에서 듣게 된 점은 어떻게 보면 긴장의 연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어가 아닌 언어로 의사소통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 회화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사귄 친구들과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나가며 학업적인 피드백을 얻기도 하는 등 교환학생은 다방면으로 제게 큰 도움이 된 활동이었습니다. 부디 후배님들도 현지의 살아있는 언어를 경험할 기회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의 내용으로 제 학습 방법과 나름의 팁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 생활 전체를 돌이켜볼 좋은 기회가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やればできる(하면 된다)'

글의 제목에도 적혀있듯 제 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자신을 믿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도 세분화해 성취감 또한 맛보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필력입니다만 저의 방법이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준 후배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찬란한 청춘의 시기인 지금을 학업과 더불어 여러 아름다운 추억으로 수놓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달픔은 내일의 여유

백속현_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19학번

안녕하세요, 아랍어과 19학번 백속현입니다. 여러분께 제 대학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쑥스럽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대학에서의 활동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보람차고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던 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후배님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공부법과 작은 팁들이 후배님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와 시간 관리

시간표에 맞춰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표 짜기는 내가 어떤 것을 중요시 하는지 생각해보고, 내 취향대로 짜는 것이 후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많아 오후 수업 듣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 위주로 짜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듯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시간표를 짜놓고 상황을 대비하여 플랜 B와 플랜 C 같은 차선책도 미리 생각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수강 신청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시간 관리는 내가 어떤 시간표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우주 공강' 일 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 공강(수업 사이에 비어있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인 경우, 의외로 시간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해당 학기에 들으려는 과목들을 시간표에 넣다 보니 우주 공강인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나중에 미뤄져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로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과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던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동아리 방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학교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며 활력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능률도 잘 안 오르고, 또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을 조금 환기한 후에 다시 공부나 과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가볍게 수업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거나 찾아보려고 했던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과 공부 습관

(1) 집중과 성실

정말 빠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복습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는 것도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특정 내용을 설명하시다가 이와 관련된 다른 정보를 알려주실 때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결석하거나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공부에도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기 위한 제 태도가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와 과제는 성실히 해야 하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학년이 지나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거의 2년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학교에 나오는 요즘도 간혹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 직접 가서 듣는 대면 수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장 듣기가 싫어서 나중에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미루다가 시간이 계속 가면 걷잡을 수 없어지고 듣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급하게 많은 양의 강의를 봐야 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전공의 경우, 1, 2학년 때에는 단편적인 문법이나 강독 수업을 들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작품이나 장문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고 다시 파악하는 것은 힘듭니다. 벼락치기를 하기보다는 날을 정하여 꾸준히 내용을 보고 반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언어는 단어 암기와 반복이 필수

‘언어는 단어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언어를 가지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도 여러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특정한 단어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언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를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언어는 반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랍어의 경우에는 지켜야 할 문법 사항이 많고, 한국어와 다른 부분이 꽤 있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문법부터 정리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각각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학년 때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반복해서 문법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3) 지역학

언어전공을 하다 보면,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지역학 수업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역학은 말 그대로 내가 배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치, 역사, 문화, 사회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학문입니다. 지역학은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단순히 달달 암기하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여 머리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생각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시험 때에도, 시험이 끝난 후에도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가끔 교수님들이 ppt를 보여주시거나 내용 설명을 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 혹은 논문을 언급하시는데,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안 찾아봐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료들을 읽고 수업 내용을 본다면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작성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리포트 쓰는 법을 바로 익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포트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형식에 맞추어 내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위해 일단 후배님들께 '미네르바 인문 수업'을 잘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1학년 때 많이 듣게 되는 미네르바 인문 수업은 작품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며, 나의 의견이나 내용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각 미네르바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리포트에 대해 조언도 해주시고,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을 알려주시는 때도 있어서 리포트를 쓰는 법을 익히고 연습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리포트는 한국어로 이루어진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와 같은 원어 수업에서도 많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영어 리포트도 쓰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틀(outline) 자체는 한국어로 쓰는 리포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포트는 무조건 길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참고한 글을 내 리포트에 적더라도 나만의 말로 바꿔서 쓰고, 출처는 꼭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작성을 계속 미뤘다가 제출 일자가 가까워졌을 때 급하게 쓰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꾸준히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량을 작성해야 한다면 뒤늦게 한 번에 쓰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찾아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 보내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보람차지만, 대학 생활의 완성은 '여러 가지 경험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후회 없이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도전해보는 것이 후회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고, 더 이상 경험해볼 수 없는 일들도 있으므로 주저 없이 하고 싶은 활동들에 참여해보고 경험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도전해보겠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도 참여했던 여러 학과 활동들과 교내 동아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을 거의 다 해 볼 수 있었고, 특히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이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후배님들께도 도전하고 싶은 일들에 마음껏 참여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법은 다양하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으므로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공부법과 대학 생활을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후배님들도 보람되고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생활, 나만의 길을 찾는 여정

선혜연_서양어대학 프랑송용용어문학전공 18학번

안녕하세요. 프랑송용용어문학 전공 18학번 선혜연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외대생으로서 직접 보고 느꼈던 저의 경험이 후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해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조언이며, 결코 완벽한 정답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외대에서의 4년이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도 잊지 못할 찬란한 순간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업 선택 및 수강 신청 방법

저는 수업을 선택할 때, 아무 수업이나 골라서 수강하기보다는 제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처음에는 공강을 만들기 위해, 혹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수강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많은 수업을 들어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교양 수업을 수강하면서 이중 전공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좀 더 쌓을 수 있었고, 전공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도 꾸준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배우고 싶은 분야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공동교양이나 스포츠 과목 등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면서 좀 더 다채로운 학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이나 이중 전공의 경우, 같은 수업이라도 교수님마다 선호하시는 수업 및 시험 방식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강 신청 전, 강의계획서와 강의평을 미리 읽어보면서 수업 내용 및 학습 평가 방법 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있는지, 과제와 시험은 몇 번 있는지,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한 후 선호하는 방식의 수업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네르바나 교양 외국어와 같은 학년 필수 수업이나 전공 필수 수업은 꼭 해당 학년에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학년 때는 1,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필수 수업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뒤늦게 수업을 들어야 하게 되면 시간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 필수 역시 학년 필수 수업을 순서대로 들어야 수업의 난이도를 좀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학년 때 학점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취업을 위한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준비 등을 병행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저학년 때 필요한 이수 학점을 많이 따놓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이중 전공을 선택하기 위

해서는 1학년 때의 성적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경우, 인기가 많고 학점 합격선이 높아 4점대의 학점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경쟁률은 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1학년 때의 학점을 기준으로 이중 전공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쟁률이 높거나 높은 학점을 요구하는 이중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면 1학년 때도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공부 및 시간 활용 방법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단연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저는 왕복 3시간을 통학하는 학생이었음에도 4년 내내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만 꼬박꼬박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교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만 이해해도 기본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 후 혼자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수업만 잘 들어도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두 필기하려고 노력했으며, 놓친 부분은 수업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반복을 통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방법이 당장 앞둔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면 그 내용이 쉽게 잊힐 뿐만 아니라, 추후 졸업시험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을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과정보다는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노트에 옮겨적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을 위해 정말 필요한 내용만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필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틈틈이 수업 내용을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정리했고, 시험 기간에는 정리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손으로 적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2회독, 3회독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는 필기를 보지 않고도 모든 내용을 직접 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는 필기를 통해 만든 짧은 요약본을 들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복습하였습니다. 특히, 긴 통학 시간이 아까웠던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짧게나마 정리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직접 정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쓰면서 공부하다 보면, 시험 기간에 해당 내용을 좀 더 쉽게 상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이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겨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리포트 작성 방법

리포트 역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작성하는 방법이 리포트의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제 제출일에 맞춰 급하게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리미리 조금씩 작성하여 여러 번 검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천

이 리포트 작성을 마친 후, 제출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작성한 리포트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오타자, 어색한 형식이나 논리적 주장 등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덧붙여, 리포트 작성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리포트에 담아내고자 하는 주장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는 정해진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양식(글자 크기, 글꼴, 페이지 수 등)에 맞춰 리포트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방법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참고문헌 등을 활용한 자료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참고한 내용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리포트 제출 전, 맞춤법 검사와 표절률 검사를 통해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내외 활동

외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교내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 7+1, 해외 인턴 및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에 무조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실습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진로 결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이 많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내내 아르바이트, 연합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해외여행, 대외 활동 및 인턴 등 다양한 활동에 끊임 없이 도전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생활을 넘어 자유롭게 도전했던 크고 작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채로운 삶을 접했기 때문에 저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높은 학점만이 대학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내외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도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앞서 강조했듯이, 제가 제시한 방법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방법과 전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안현진_일본학대학 융합일본지역전공 18학번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배 여러분. 저는 일본학대학 융합일본지역전공 18학번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이렇게 저의 대학 생활을 후배님들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 나름대로는 5년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가 어떻게 '성적'을 잘 받고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이 글은 저에게 적합했던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것일 뿐 '누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A+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 공부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하고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간/기말고사 공부법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기말과 같은 시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다 한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꼭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 후에 자료를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거나 교수님께 여쭙봐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필기해 그 부분을 나중에 몇 번을 다시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가까워져 오면 수업 내용 전부를 암기했습니다. 전공이 일본어인 만큼 동기나 선후배분 중에 언어에 능통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언어적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우분들에 비하면 그 수준이 깊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몇 번이고 쓰고 또 쓰는 방법이 암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수업 자료를 보면서 외우고, 그다음엔 자료를 보지 않고 백지에 제가 기억하는 내용을 전부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업 자료를 보면서 다시 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제가 기억하는 모든 내용을 백지에 써보는 식으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 시험이 끝날 즈음엔 공책 몇 권을 다 썼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과제와 발표 준비법

과제나 발표는 암기 후 아는 내용을 쓰는 시험과는 성격이 달라서 준비법 또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포트 작성이나 발표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을 잘 담아 리포트를 쓰거나 발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그 자료의 공신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출판 서적이거나 논문만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나름의 논리 구조를 짜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논리의 흐름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탄탄하게 짜면 의외로 5-7 페이지 분량의 리포트 작성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발표의 경우 직접 PPT 자료를 만들고 많은 학우분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PPT 발표 자료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을 길게 담지는 않으면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야 할 때면 많은 분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습, 또 연습이었습니다. 발표할 때면 대본을 작성해 몇 번이고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며 대본을 외울 정도로 준비를 해 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학교생활에 관하여

1) 방학을 열심히 활용할 것

대학생이 되면 중고등학생 때보다 방학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모두 합치면 1년 중 약 4개월이 방학인데, 이는 한 해의 1/3에 해당하는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대학 생활을 알차게 꾸려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에 비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특성상 오랜 기간 가까이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우므로 방학 때에도 꾸준히 일본어를 가까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서 매일 일본의 뉴스를 보고 따라 써보고, 잘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는 등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학을 전공 공부에만 쏟았던 것은 아니고, 학기 중 시간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했던 대외 활동도 조금씩 해 보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방학을 활용해 관심 분야의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2)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활용할 것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한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라는 신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만 해도 진로취업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다양한 교외 장학금에 지원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도 몇

차례 도전하여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며 저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저 자신도 정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학과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 그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점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했다면 책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머치토키 18학번의 잔소리 모음집

이에나_서양어대학 노어과 18학번

안녕하세요, 마음만은 아직 새내기 같은데 벌써 졸업예정자가 되어버린 이에나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를 하자면, 한국외대에서 러시아어와 국제통상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현재는 인사 직무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저의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면, 대학 시절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싶다는 욕심과 학점 4.0을 넘는 것에 대한 로망을 원동력 삼아,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나름 꽤 노력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놀면서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정직한 성격의 학생이기에 많이 놀면서 성적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술자리를 어색해하기도 했고, 통학 시간도 1시간 40분 정도 걸렸던 탓에,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20대 초반 특유의 올로족 같은 생활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전공 공부에 관련하여 잔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써놓고 보니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운데, 뭐라도 하나쯤은 유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학년별 잔소리

1) 1학년을 위한 잔소리 : 학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자+학교의 다양한 사업/제도들에 관심을 가지자

1학년 시절, 저희 과에서는 과 OT 당시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들으면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셨어요. 물론 그렇게 들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제시해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문법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2학년에 들어서 진도를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학업적 공백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되도록 수강 신청 전에 학과 혹은 선배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과 사무실에 가면, 대학원생 조교님이 계실 텐데, 그런 분께 여쭙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본 전공 공부가 좋아서 대학원까지 가신 분들이고,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도 가장 많은 분이시거든요. 새내기가 열정적으로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즐거워하시면서 알려 주실 거예요!

추가로, 1학년 때 전공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강 신청은 물론이고,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많이 듣기보다는 전공 수업을 많이 들으며 기초를 탄탄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나 제도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학 전공생 중에서 CORE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학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학 전공생들은 졸업학사로 '문학사'가 나오지만, 해당 전공을 신청하면 '문학사+지역학사'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은, 학교 규정이라 내규 같은 것을 찾아보면 자세히 설

명되어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필수 교양 수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고 필수 교양 과목은 미리미리 수강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늦게 신청해서 필수 교양을 다 못 채웠거든요. 학교 교양 운영 계획이 정상 운영되었다면 필수 교양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계획했던 대로 과목 오픈을 해주지 않으셔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교수님 일정으로 인해서 교양 과목이 열리는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 넉넉하게 생각하고 계획하세요★)

2) 2학년을 위한 잔소리 : 이중 전공과의 병행, 쉽지 않지만 적용하려고 노력하자.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전공이 2개가 되는 신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세 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국제통상의 경우에, 경제학 관련 과목과 법학 관련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공 수업을 듣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뇌를 사용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어학은 정확한 이해보다는 조금은 무식하게 단어와 문장들을 외우는 과정이 필요했고, 반대로 법학 과목은 단순 암기가 아닌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제학은 이해와 암기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공부법을 바꿔가며 공부를 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성적도 한번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과 비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각 과목에 대한 저만의 비법(?)은 에세이 후반부에 적어두었습니다!) 2학년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3~4학년 때 고생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2병 때문에 너무나 하기 싫은 공부를 골고루 잘하려고 노력은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나를 버리는 선택은 사실 그렇게 현명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포기했던 부분을 채워야 하는 순간(ex. 재수강, 졸업시험 등)이 찾아오고 전공과목 커리큘럼은 유기적으로 설계해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보시길!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공부해보니 이중 전공이 정말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른 전공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중 전공 변경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더해서, 딱히 배우고 싶은 게 없는데 대학원이 아닌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되도록 경영 경제 학사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취업전선에서 그 학사가 있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중한 모집공고 '우대사항'에 [경영/경제 관련 전공 우대]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 심적으로 조금 불안합니다. 엄청난 우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취업시장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경제와 경영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는 진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나 금융공기업 쪽을 희망하신다면 입사 시험에 금융/경제 관련 시험을 볼 수도 있어서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은 교양 수업이나 학점은행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고 정보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교양 수업이 없으니, 이런 면에서 저는 경제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3) 3~4학년을 위한 잔소리 : 이제는 대학 공부에 대해 좀 알겠는 시기, 학점 영끌 시점!

3~4학년에 올라가면, 이제는 공부도 좋지만, 자신의 성향이나 진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 역시 4학년을 마치고 나서야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로를 정확히 정하라는 말은 아니고, 적어도 대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못 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정도는 파악해두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러시아어라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언어적 센스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기도 했고, 러시아 문화

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어학 능력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학 수업보다는 지역학 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학에 대한 꿈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런 커리큘럼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학 능력은 학원에서도 기를 수 있지만, 지역학적인 지식과 관점은 외부에서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한국외대라는 곳은 지역학에 있어서 이른바 '1타'인 곳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께서 만나는 교수님들은 논문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종종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수업을 들을 기회이니, 지역학 수업 꼭 들길 바랍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학점을 세탁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 것들 중의 하나가, 전공인정 과목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학점을 좀 잘 따고 싶는데, 나의 본 전공/이중 전공이 참 나와 안 맞고 전공 변경은 여의찮다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타과 과목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어과 같은 경우, 브릭스 전공과목에서 인정되는 과목이 무려 6학점이나 있고, 국제통상의 경우에는 경영학 전공과목에서 인정과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회계원리와 재무관리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경영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두었으니, 전공 학과의 '내규'를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3~4학년이라면 졸업요건에 대해서도 아셔야하니까요,

과목별 잔소리

1) 어학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과 시험지 공부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는, 거창하게 스터디를 운영하라는 의미보다는 놀면서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랑 암기를 서로 도와줄 때, 말도 안 되는 대답하면서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 게 이상하게 시험 볼 때 기억이 나요. 다들 시험 보고 나와서 같이 공부한 게 나왔다고 즐거워한답니다.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지 공부법은 제가 대학 다니는 내내 했던 방법입니다. 학원에서 나누어주는 학습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외워야 하는 문장들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두고 그걸 러시아어 문장으로 적거나, 독해 지문에 구멍을 뚫어두고 들어가야 할 단어를 쓰는 식으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지를 만드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하지만, 시험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잘 모르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 효율이 올라갑니다. 만드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두면 시험지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추가로, QUZLET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단어를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들, 특히나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특수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된 책이 별로 없기도 하고 단어장 어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장은 시험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QUZLET은 포함하고자 하는 단어만으로 단어장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 역시 만드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단어장을 만들면서 외워지는 부분도 꽤 많고, 내가 만든 단어장으로 시험도 객관식/주관식/OX 문제 등 다양하게 테스트도 해주니 매우 유용합니다. 전 졸업시험 이걸로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추!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으니, 친구들과 수업에서

나온 단어 분량 나누어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시간 절약 방법이 될 거예요!

2) 경제학 과목

경제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도 안 풀리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랬을 수 있음 주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디를 이해 못 하고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께서도 문제 풀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내시더라고요. 저는 국제통상에 '김장열' 교수님의 경제학원론을 들었는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하시고 교안에 반영해주시는 친절한 교수님이세요. 김장열 교수님 자료는 학년이 올라가도 다시 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수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교수님이든, 질문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경제학 수업은 잘 들어두시면 취업 시험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분야들이 있어요. 공기업에서는 전공 시험으로 경제학을 보기도 하나까요! 뭐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다 써먹을 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3) 법학 과목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법 과목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민법, 기업법 같은 들으면 고생한다는 법 교양 과목까지 찾아 들을 정도로요. 공부법을 터득하고 난 후에 가장 성취감 있던 분야입니다. 그만큼, 그 공부법을 찾아내는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완벽한 정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 법학 과목을 수강할 당시에는, 조문들을 정갈하게 정리해두고 예외도 아름답게 '정리'하면 제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법 과목을 수강할 때 완벽한 정리의 약은 별 도움이 안 되었어요. 오히려 조문을 적어두고 예외를 깔끔하게 적어두는 과정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막상 서술형 문제를 쓸 때 해당 조문을 글로 표현할 소스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조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조문과 관련된 논점들에 대해서 내가 글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문에서 A라고 한다면, A 자체를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A라는 기준이 생겼는지, 그 예외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운 법률들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조금만 응용시키면 아예 접근도 못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항상 A, B, C를 독립적으로 가르치시고, 시험지에서는 A, B, C를 짬뽕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환경을 설정하는 공부 방법

전희주_아시아언어문화대학 몽골어과 18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18학번 수료한 전희주라고 합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대학교 생활을 앞두고, 취업 준비와 학점 관리 등 학교생활 전반에 많이 고민하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저의 작은 성취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학 생활은 우리가 지나온 학창 시절의 것들과 매우 닮아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4년간의 학교생활에서 학점 관리부터 인턴, 취업 준비 과정까지 느낀 점을 공유해드려 조금이라도 갈피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왕복 3시간 통학, 학점 관리의 기회로 생각하다!

시간 관리와 학점 관리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산에 거주하며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의 거리를 공강 요일 없이, 매일 통학하는 시간표를 작성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표를 작성한 것이 제가 다른 학우분들보다 다소 우수한 학점을 습득하는 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게으른 성격의 소유자로, 밖을 나가지 않을 때는 종일 누워서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며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환경 설정'이었습니다. 우선 주거지와 학교까지의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거리로, 통학하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을 듣고 나면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피하고자 도서관, 카페 등 최대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저는 덕분에 다른 학생들보다 학교에 더 많은 시간을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럽게 당일에 주어진 과제, 복습, 팀 프로젝트를 빠르게 처리하고 전공 공부 역시 미리미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학교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시험 기간)에도 통학 시간 3시간 동안 대중교통에서 복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학교 공부에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래 걸리는 통학 시간으로 걱정하는 후배님들도, 오히려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시간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수어 공부, 모두가 제로 베이스이기에 모두가 가능한 영역

저의 1전공 과목인 몽골어 공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특수언어의 학습은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매력적인 성격의 과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부분 특수어에 대한 선행 지식 없이 학부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전

공과목에 애정을 갖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노력에 비례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몽골어 공부를 위해 LG 다문화학교의 멘토링, 교육혁신원의 튜터링 활동에 참여하며 전공과목에서의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몽골어 자체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니, 전공 수업과 과제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자격증 공부나 심층 학습 없이 대부분의 과목과 졸업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알려 주신 판서를 모두 받아 적고 통학 시간에 복습하거나 수업 시작 직전 1시간 일찍 도착해 미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수어 공부는 온전히 노력의 영역이고, 본인의 노력이 성과와 직결되는 매력적인 과목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내용이 어렵더라도, 우직하게 복습하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제시해주신 과제를 수행해나가면 특별한 선행 학습이나 심층 교육 없이 좋은 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양 과목, 수업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들은 미네르바 교양 과목을 비롯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과목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교양 과목들의 경우 전공과목들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습, 복습의 과정 없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교수님들의 판서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정도로만 평소에 학습해두시고, 시험 응시 2주 전부터 관련 자료들을 워드 파일 등에 정리하여 스스로 관련 내용을 '논술문' 형태로 출력하는 연습을 1~2회 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취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과목들의 경우 전공과목에 비해 같이 수강하는 '동기' 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놓치게 되면 난감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양 수업들은 수업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들은 시험 기간에 빛을 발해, 전공과목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 공부, 경제를 공부하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기에는 내 머리가 너무 안 좋지 않을까?'. 제가 경제학을 이중 전공으로 선택하면서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경제학 과목들을 수강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학도 순전히 노력의 영역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성격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시에서 다루는 경제학과 달리 학부 수준의 경제학 내용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나, 스스로 역량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경제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들에 크게 취약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 학문이 많은 수식을 다룬다는 데서 지레 겁을 먹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다뤘던 수학 내용 중 '사칙연산' '산수' 정도만 익히고 있다면 경제학에서 다루는 수식을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경제학 학점 관리를 위해 제가 수업 중, 수업 이후에 가졌던 학습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업 중,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의 태도로 임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의심이 드는 방법이지만, 경제학 저서의 내용들은 처음 볼 때 어렵지만 두 번째 볼 때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볼수록 이해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수업을 수강할 때는 전공 언어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수업 시간에 큰 열을 내지 않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의 수준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이후에는 교재의 '연습 문제' 내용들을 사전 지식 없이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서 당연히 풀리지 않습니다. 대신 연습 문제들을 먼저 보면, 앞서 수업 중 확인했던 '수식'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다시 교과서 내용을 읽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업 이후의 학습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추후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테셋(TESAT) 경제 이해력 시험'에 응시해 1급을 취득하거나, 구글에 경제학 개념과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검색해 직접 풀어보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의 경우 우리 학교 황정빈 교수님 집필의 '공기업 객관식 경제학 700제'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학점 관리의 실효성, 공공기관 인턴 2회 활동과 취업 준비

사실 요즘 취업 관련 유튜브나 자료들을 보시면 학점이 필요 없다는 식의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점 관리를 충실히 했던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KDB 산업은행 인턴, IBK 기업은행 인턴을 수행하며 관련 전공과목들을 교육 사항란에 입력하거나,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때 자신감을 느끼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학점 덕분에 인턴 면접과 대외 활동 면접에서 전공 관련 대답을 전달하는 데 스스로 자신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좋은 성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국가우수인문100년 장학금'과 같이, 본인의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외부 장학금들의 경우 학점을 주요한 성과 지표로 고려하기 때문에 장학금 취득 부분에서도 학점은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상한 장학금들은 다시, 취업 관련 이력서에 부족한 수상 내역을 보충하는 데에 활용에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점 자체가 절대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과 열정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점 점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 집중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성과들을 내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취업 준비에서의 마인드 셋

사실 저학년 시절, 즉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 1학년~2학년 시절부터 취업 준비에 열중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점 관리, 대외 활동, 인턴 등 해야 할 과제들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자책했던 저의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성과에 대한 부담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스스로 의지로,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께서 그리고 계신 학교생활에서 성과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적게, 스스로 좋아하는 것

들은 가득하게 꾸리는 학교생활을 보내신다면, 결과적으로 취업과 자기 계발에서도 긍정적인 노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역량이 아주 부족하다거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원하는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 또한 그저 평범한 학생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상기해주시고,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학교생활을 그려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완성해가는 남다른 대학 생활

조수아_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전공 19학번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전공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앞둔 19학번 조수아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지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계속해서 좋은 학점과 장학금을 받으며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모두를 위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강 신청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시작은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 수강편람을 확인하며 졸업을 위해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확인했었습니다. 학과별, 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은 다르기에 수강편람을 꼭 확인하셔서 4년 수강 신청의 큰 틀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국학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있으므로, 전공필수과목과 교양필수과목 외에 전공 영역별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리스트에 맞추어 수강 신청을 준비했었습니다.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생은 전공필수과목 외에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기본이수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하셔서 시기에 맞춰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편람 내 “비사범대학 학과별 교과교육과목 및 전공기본이수과목 리스트” 참고)

꼭 들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 수업 권장 학년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학년 전공필수 과목을 고학년 때 잡기는 정말 정말 힘들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필수 수업은 학과에서 정해진 학년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수업을 한 번에 몰아 듣기보다는 매 학기 적절하게 분배하여 균형 있는 시간표를 만든다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같은 과목 수업이 여러 교수님 수업으로 개설된다면, 강의계획서의 “평가계획 및 방법”이나 강의평에 남겨진 직전 학기 “수강생의 경험”을 찾아보며 자신의 수업 및 공부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꿀강의’라고 소문난 강의가 자신에게도 반드시 꿀강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꿀강의’인 이유가 자신의 학습법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강의계획서와 강의평가를 확인하고 “꿀강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

저는 4년 동안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업에 빠진다면 결국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모르게 되는 것이기에, 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각이나 결석 한 번으로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그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사소한 이야기나 부가적인 설명도 필기해보려고 시도하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교수님께서 시험에 출제할만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을 손쉽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업을 들으며 해당 시간 내에 내용을 배우고 더 나아가 정리요약하고 일부분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기간 / 시험공부

저는 시험공부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시험공부는 매주의 복습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주에 배운 내용을 개인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후 다음 주차 수업 전까지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중요한 '복습'입니다. 물론 시험 2~3주 전 수업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단기간에 암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속지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고 한 번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마친 당일 가장 기억이 뚜렷할 때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다음 수업 전까지 저만의 정리요약본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핵심을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기간을 따로 정해서 그때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복습을 축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기간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복습했던 것을 토대로 자신의 암기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훑어보고 점검하는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리포트는 모든 학생이 매 학기 한 번 이상 마주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주제와 전반적인 틀을 잡는데 신중하게 고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주제를 정할 때는 자신의 주제가 조사해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충분한 주제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주제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자료가 부족하다면 좋은 리포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틀인 "서론-본론-결론"의 뼈대를 제대로 잡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뼈대를 잡지 않고 글을 작성한다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주제를 알 수 없는 그저 긴 문장의 집합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를 위한 자료조사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술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블로그 글이나 위키백과 같은 자료를 인용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논문이나 학술지의 글을 참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리포트가 타인의 논리적인 자료를 그저 나열하는 요약문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논점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리포트는 나의 논점을 드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리포트는 반드시 일찍이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리포트는 단숨에 완성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을 두고 작성하며, 여러 차례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타자는 없는지, 전체적인 양식에 오류는 없는지 꼭 출력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

하는 오탈자가 리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글의 방향성이나 논점이 있다면 이를 미리 파악하여 자신의 리포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주 차 오리엔테이션이나 리포트 과제에 관해 설명하실 때, 알게 모르게 교수님이 던지시 언급하실 수 있으니 리포트에 대한 교수님의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팀 프로젝트

저는 팀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팀/개인을 선택할 수 있으면 항상 개인 발표를 선택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팀 프로젝트를 피할 수는 없기에 저는 저만의 팀 프로젝트 성공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를 누군가 주도하게 기다리기보다 늘 제가 주도했습니다. 물론 주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한다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한다는 것은 곧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과제를 시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인터넷 자료를 복사/붙여넣기만 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혀가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런 사람 대신 열심히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저 역시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면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기 때문에 저는 “나라도 열심히 하자”하는 마음으로 팀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역할을 나누어야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간을 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방향이나 틀을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팀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예상치 못한 “구멍”이 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저는 “결국 나도 받게 되는 성적이니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내가 더 열심히 하자”라는 태도로 팀 프로젝트에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 관리

저는 자투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허무하게 낭비하는 시간이 분명 존재하기에 저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짧은 시간에 틈틈이 무언가를 완성하고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학생이기에 학교에 오가는 통학 시간을 복습과 암기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시간에 복습과 암기를 진행하면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쉼이 있는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일찍 도착하여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남은 10~30분에 전 시간 수업 내용 정리요약본을 보며 핵심 내용을 암기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흘러보내는 1시간을 그날 배운 것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복습하는데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저 흘러보낼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다른 시간을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에 자신만의 자투리 시간을 찾고, 그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정하고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글을 쓰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한 번에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다음에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톡톡이, 조금씩, 나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에 조그마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 매일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노력해왔기에 이렇게 글을 쓰며 의미 있는 남다른 대학 생활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값진 대학 생활은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모두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이 작은 노력을 통해 소중한 의미 있는 결실로 채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후회 없는 4년을 보내기 위해

진혜윤_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18학번

안녕하세요. 독일어통번역학과 18학번 진혜윤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후배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바람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에서는 인적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후배님들이 선배들, 동기들과의 교류에 여러 한계를 느끼셨을 텐데, 제 후기가 그런 후배님들께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과 맞는 공부 방식이 모두 다르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저는 서울에서 용인을 통학하며, 매일같이 지하철과 광역버스에 버리는 4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더불어 이동시간이 길면 그에 쓰는 에너지가 많아, 집에 와서도 휴식 시간이 필요했기에 통학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에 차주 일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정리하지는 않았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적어두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1,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독일어연습 과목에서 매주 시험을 치릅니다. 단어 시험, 받아쓰기, 문법 시험 등이 있습니다. 저는 통학 시간에 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더불어, 저희 학과 필수 과목 중에는 매주 책을 읽고 토론하는 전공교양세미나라는 수업이 있기에, 버스에서 전공교양세미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매일 공부를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최대한 통학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날들도 많았기에, 그럴 때는 리포트 초안을 짜며 시간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내용 구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날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8교시가 끝나는 5~6시에는 광역버스가 정말 많이 밀립니다. 평소에 1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2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8교시가 있는 날은 백년관 열람실에서 복습 혹은 과제 등의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전공(독일어통번역학) 공부 방법

언어 전공자분들은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과마다 꼭 외고에서 해당 언어를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외고에서 독일어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1학년 때에는 전공 공부를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시간을 적게 들여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학년 이후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수준이 꽤 높아지고, 1학년 때 들인 노

력만으로는 똑같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언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고 친구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제2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다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외고 출신 동기들 보며 '나는 애초에 글렀어, 저런 애들 천지인데?'라는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들이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복습 꼭 하시면서 수업 진도 따라가시고, 모르는 건 작은 거라도 꼭 질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니까요.

이중 전공(경영학) 공부 방법

이중 전공과목들은 에브리타임에서 선배님들이 남긴 후기, 강의평, 시험정보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포인트를 주면 시험정보 알 수 있는 기능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영학은 무작정 외워야 하는 과목들도 많습니다.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 조직행동 등의 과목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과목들은 정말 무작정 외우는 것밖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영통계학, 재무관리,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의 과목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재무와 회계 과목은 교재에 단원마다 연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문제들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 기간 직전에 연습 문제를 풀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정말 막막해지므로, 그때그때 연습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항은 교수님께 메일로 질문하며 공부했습니다.

방학 활용

저는 늘 생산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허투루 보낸 방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 + 독일어 학원/영어 학원/자격증 공부 등의 생활을 했습니다. 언어 전공자분들은 특히 방학 때 언어를 놓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어는 일주일만 안 해도 실력이 급감합니다. 전공 언어에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방학을 활용해 ZD, DELE 등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언어 시험을 준비하면 FLEX 역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졸업요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공부 이외의 학교생활 Tip

학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장학금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외부 장학금 공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롯데장학재단을 통해 5학기 동안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HUFsability (hufsability.hufs.ac.kr) 입니다.

저는 흡서빌리티와 진로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진로 취업지원센터에서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선배님들의 강의, 혹은 상담관분들께서 진행해주시는 취업 강의를 들으며 일찍이 제가 원하고 잘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강의를 통해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찍부터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했던 지난 1년간은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상담관 선생님들께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고 모의 면접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면접 때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배우고, 많이 부딪혀봤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에 가서 긴장하지 않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100% 보여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현장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바빴던 터라, 자기소개서를 단 한 번도 첨삭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류합격률은 처참했었습니다. 반면 인턴 퇴사 후 7월, 8월 두 달간 진로취업지원센터 선생님께 자기소개서를 전부 첨삭 받고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덕분에 13%에 불과했던 제 서류합격률이 이번 하반기에는 40%까지 상승했습니다.

상담관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므로, 본인과 잘 맞는 분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브리타임에 검색해보시면 학우분들이 남긴 진로취업지원센터 후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우선 여러 선생님께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특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므로, 저는 여러 선생님께 첨삭을 받아보고 싶어서 두 분께 번갈아 가며 첨삭을 받았습니다.

셋째, 현장실습입니다.

현장실습 공고는 1년에 4번 현장실습지원센터(co-op.hufs.ac.kr)에 올라옵니다. 학기 대체 혹은 방학 중에 진행되는데, 저는 4학년 2학기를 현장실습으로 대체했습니다. 덕분에 실무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듣지 않고 현장실습으로 전공 3학점, 이중 전공 9학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은 아무래도 일반적 인턴보다는 경쟁률이 낮기도 하고, 허들이 비교적 낮아서 시도하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학년 겨울 방학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으나, 4학년 2학기에 같은 기업에 재지원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탈락하셔도 계속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넷째, 교환학생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교환학생을 무려 3번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경험한 주변 친구들이 코로나여도 가야 한다고 강력히 추천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완화된 21년 2학기에 독일 베를린에 다녀왔습니다. 외대는 다른 학교보다 교환학생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만 준비하면 원하는 학교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교환학생을 갈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영어 점수와 전공 언어 점수를 만들어 두시고 꼭 교환학생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개월간의 독일 생활로 인해 알게 모르게 배우고 체득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면접, 자기소개서에서 독일과 유럽 경험을 통해 답변할 수 있었던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돌아온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후배분들이 계신다면, 교환학생 역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나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으므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배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영학 이중 전공 선발 시험 도움을 주셨던 선배, 취업 스터디에서 만나 특정 기업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팁을 아낌없이 주셨던 선배, 현장실습에 재지원할 때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며 '나도 선배들처럼 외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졸업을 앞둔 제가 만들어갈 선순환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에브리타임 등의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아도 그렇고, 학우들과 대화해보면 우리 학교는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어문계열은 안 된다는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자로서, 취업이든 뭐든 모든 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소신 있게 열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졸업을 한 이후에도 외대의 선순환을 이어나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대학 생활
	최소현_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18학번

바람직한 대학 생활이란

여러분은 어떤 대학 생활을 꿈꾸며 외대에 입학하셨나요? 재학생이라면 대학 생활 동안 어떤 것을 하셨고 또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졸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을 잘 받는 데에 큰 노력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동아리나 활동들을 하는 데에 힘을 쏟기도 하겠지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 아쉬움이 남는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돌이켜 보면 “대학생”은 저에게 실패를 아낌없이 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대학은 정형화된 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저의 대학 생활의 일부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 대학 생활은 아픔, 슬픔, 기쁨, 괴로움 그리고 뿌듯함 등 다양한 색깔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하는 것과 발전시킬 점은 무엇인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속해서 배워 나갔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선택과 시간표 만들기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마다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수강 신청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고를 때, 강의계획서랑 강의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계획서를 보면서 배울 내용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성적평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파워 P(즉흥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발표와 리포트를 쓰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단기간 벼락치기 후 시험을 보는 성적평가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 이후 강의평가를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강의가 맞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시간표에 배치해보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표인지, 강의끼리 겹치지는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적 평가 방식이나 강의평가에 상관없이 한 학기에 정말로 꼭 듣고 싶은 강의 두 개 정도는 꼭 시간표에 넣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저학년 때에는 일본어와 국제관계에 관련된 강의를, 고학년 때에는 코딩 수업이나 프로그래밍 수업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새로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거나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뻘뻘한 시간표에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간표 짜는 방법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강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강의의 몰아 듣고 일찍 귀가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와 강의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뜨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긴 편이 아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었고, 강의 전후로 연습과 복습을 하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집중이 잘되지 않아서 공강 시간에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느긋이 앉아서 연습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시간표를 어떻게 짤지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성적”이겠지요. 성적을 잘 받는 것은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을 잘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을 들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지고 많은 유혹을 견뎌내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도 하며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팀플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중력을 기르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배우며, 시간 관리법을 터득하고,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다루어 내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학업성취도”인 ‘성적’이라는 결과값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는 차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정답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잘 받아 놓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제시간에 제출하고, 발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만 더 나아가 제 전공인 네덜란드어(언어)와 국제통상학과 시험 준비에 대해 조금 더 공유 드릴까 합니다. 과목마다 연습과 복습 방법이 달랐는데, 본 전공인 네덜란드어 강의인 경우는 주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언어는 단어 외우는 것이 생명이고, 문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장을 완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문법, 이 둘을 확실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강의 전후에 문법과 단어를 잘 ‘암기’하는 곳에 많은 노력을 할애했습니다. 반면, 이중전공인 국제통상학과 과목들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강의에서는 공식 도출 과정을 매 수업 후에 복습하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들을 항상 풀었습니다. 제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강의만큼은 매 수업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복습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학(특히 통계)은 수업 시간 진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전 수업 시간 이해도가 부족하면 다음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끝나고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복습하고 문제도 풀면 진도를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이후 시험 기간에 전체 개념을 복습하고, 족보나 연습 문제를 삼 회 정도 풀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국제법 수업 또한 법 조항이 뜻하는 바와 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한 다음, 헛갈리는 적용 사례들을 비교해

서 정리해두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의를 선택할 때 성향에 잘 맞는 강의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강의 중에는 제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리포트와 과제 혹은 발표가 많은 수업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에 적어도 두 과목 정도는 듣고 싶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교양 일본어, 애니메이션 일본어, 히브리어 등등 언어 과목 강의를 많이 들었고, 기술에도 관심이 있어서 GRETL 프로그램이나 자바 프로그램을 배우는 교양도 시도해보았습니다. 성적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종종 새로운 과목을 시도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색다른 것을 배우는 것도 경험이고 의외로 적성에 맞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재수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두려움에 속아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은 원하는 공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 만족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공 공부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니어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시 성적대로 과를 선택했고, 부끄럽지만 네덜란드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교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네덜란드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했습니다. 좋은 과 선후배들을 만나 서로 네덜란드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며 점점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 내 소모임은 네덜란드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노래패에 2년간 참여했고, 어학회장까지 자진해서 할 정도로 어학회 활동에 진심이었습니다. 선후배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재미있었고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에 성취감이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햇수로 4년이나 참여했던 어학회는 제가 네덜란드어 자격증인 CNaVT A2와 B1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네덜란드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곳저곳에서 자료도 가져오고, 해석에 관련해서 작은 토의도 해보고, 말하기 연습도 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학회를 같이 했던 많은 사람도 자격증을 따는 큰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교내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하면서 네덜란드어를 공부했습니다. 과 내에서 2년에 한 번 하는 원어 뮤지컬에 배우로 참여했었는데, 대사를 외우면서 발음도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탄뎀 프로그램” 및 ISO에서 진행하는 “GAT” 와 “Buddy”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네덜란드 친구들과 함께 서로 문화와 언어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즐겁게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 내에서 시행하는 번역 활동과 BYOI에서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화 오디오 북 번역 및 만들기 등을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네덜란드어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특수외국어교육원에서 지원받아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친구들과 ‘네덜란드 여행지 회화’라는 주제로 유튜브 교육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외대에는 여러분의 언어 공부를 도와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들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대생의 특권을 누리보세요! 저희 모두는 실수가 허용되는 학생이고,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향상된 언어 실력과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대외 활동과 인턴

뒤돌아 생각해보면 저는 무언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면 이것저것 지원해 보고, '안되면 말지'라는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저는 경험주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신조로 흥미가 생기면 무조건 시도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내 프로그램과 소모임들을 제외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활동을 되짚어보자면,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해주는 "삼성 드림클래스",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함께 한국 비건 음식들을 홍보했던 "국제 청소년 리더 교류 지원 사업", "ASEAN Foundatio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NGO에서의 인턴십, 이커머스 실무와 박람회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무역 프로그램 "GTEP",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회사Ameriprise Financial Services (미국, 워싱턴디씨) 인턴십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성에 차지 않았는지 현재 졸업을 앞두고 코딩과 빅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어서 KITA 디지털 마스터 과정에 지원했고 붙어서 올해 12월부터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활동을 보면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저의 흥미와 적성을 탐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무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GTEP 무역 프로그램에서 팀원들과 머리를 공공 맞대고 고민하면서 쇼피와 아마존 플랫폼에 우리나라 제품을 홍보하면서 파는 일이 미국 금융회사에서 혼자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혼자 편안하게 일하는 것보다 재미있어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또, GTEP 팀원들과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머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리뷰 이벤트를 열고, 홍보 영상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만들어 보고, 구글 Ads와 플랫폼 내부 광고 툴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반면 금융회사에서는 보안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SEAN Foundation이라는 NGO에서 일할 때는 기후 변화나 인권 문제 등 국제적 이슈 해결과 인식 재고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고, 추후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GTEP을 통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원을 나가면서, 제가 의외로 고객 응대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 나가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진로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대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해주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길 바랍니다.

대학 생활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여러분은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서정적인 아이유 노래를 들으며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도 하고 가사에 치유 받기도 합니다. 제 대학 생활을 아이유 노래에 비유해 보자면, '스물셋'과 '팔레트'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유의 '스물셋'이라는 노래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색안경에 비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며 담담한 태도를 보이다가 하면 '인사하는 여자가 모퉁이를 돌고도 아직도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하다'라며 걱정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도 본인은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유의 '스물셋' 뮤직비디오에는 가사에 담긴 이중성과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뮤직비디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티브를 뒀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복잡한 색깔의 케이크를 먹고 잠이 든 아이유는 토끼를 따라 굴로 들어가고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헷갈리는 삶의 여정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토끼는 수많은 이정표 속에서 특정 방향을 정하지 않고 굴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유 '팔레트'에서 아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스물과 서른의 중간인 스물다섯의 나이에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양한 색깔을 품은 '팔레트'처럼 본인 안의 다양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색깔들로 그려 낼 무한한 가능성을 인지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스무 살 무렵 즈음에 갑자기 성인이 된 저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과 감정들을 발견하며 놀라기도 하고, 서툴고 엉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것들을 직접 해보고 인간관계도 부딪혀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유가 '팔레트'에서 "I'm truly fine"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대학 생활을 거치면서 저를 더 알아가고 이제야 온전히 나의 삶은 모습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저도 아직 조연해 드리기가 민망한 나이지만 이런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꼭 겪어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나무가 없듯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좋고 나쁜 경험과 감정들이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의 특권으로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의 달고 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A+학생들의 A+공부비법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우 02450)
전화 02)2173-2127, 2761
팩스 02)2173-2617
홈페이지 <http://iei.hufs.ac.kr/>
이메일 ctl@hufs.ac.kr



교육혁신원(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

- ◆ <http://iei.hufs.ac.kr/>
-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교수학습개발원 304호
TEL. 02-2173-2127, 2761 / FAX. 02-2173-2617